



최근 중동 정세와 원전 시장 확대를 위한 이슬람 문화 이해

이학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박물관장



- 한국외국어대 졸업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 역사학 박사 (중동 역사와 이슬람 문화)
- 터키 이스탄불 마르마라 대학 중세 사학과 조교수
- 미국 Univ. of Washington 교환 교수
- Univ. of Vienna 초빙교수 역임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외사 자문위원
- 한국-터키친선협회 사무총장
-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ICAS) 학술위원(한국대표)
- 한양대 세계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중양(中洋)으로서 중동

세상은 동양과 서양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중양(中洋)이라 칭하는 중동-오리엔트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왔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지에서도 하나도 버릴 수 없는 깊은 역사와 문화적 향기를 갖고 있다.

소위 제3세계가 역사의 지평에서 송두리째 사라지게 되는 배경에는 18세기 서양 계몽주의의 영향도 적지 않다. 계몽주의는 종래 교회 중심의 억압과 비논리성에 저항하면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라는 선물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태생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독일 철학자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크하이머의 지적대로 인류가 현대에 들어와 홀로코스트 같은 야만적 행위에 빠진 이유는 이성과 합리성의 강조가 기술문명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와 함께 갖추어야 될 윤리성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리와 분리된,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이성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적 힘의 지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더 나아가 계몽사상이 합리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유럽 중심주의의 기준에 의해 세상 사람들을 정상과 비정상, 문명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신전을 둘러싸고 저녁 기도를 올리는 모습. 이슬람은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란 인물에 의해 완성된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 타파, 평등과 평화를 표방하는 철저한 일원적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입지를 마련해갔다.

야만으로 날카롭게 구분함으로써 지구촌 많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의 깊이를 버리게 되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대표적인 문화권의 한 곳이 중동—이슬람 세계다

테러의 진정한 배경

파리에서는 언론사를 겨냥한 끔찍한 이슬람 테러가 일어나고, 중동은 IS라는 새로운 급진 이슬람 테러 조직의 등장으로 다시 테러와의 전쟁에 휩싸여 있다. 왜 중동에서만 유독 과격한 테러 집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살 폭탄 테러가 일상화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역사적 배경과 이슬람 종교적 특징이 궁금하기도 하다.

최근 10여년간 지속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의 숫자가 20만명에 이르고,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으로 약 천만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과 국민들의 의식주 고통, 미국과 서구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극도의 분노와 복수적 저항이 IS 등장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그리고 테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현대 비대칭 전쟁의 특징이 한 사람의 테러분자를 군사 공격으로 궤멸하는 과정에서 평균 8~9명의 죄 없는 민간인이 희생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극단적인 복수를 꿈꾸며 테러 단체로 몰려 들고 있다. 9.11 테러 이후 14년 동안 대테러 전쟁으로 4조 달러 이상의 예산을 미국이 쏟아 부었지만, 테러는 그 이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비극적 통계가 이

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반인륜적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외과적 처방과 함께 전쟁 난민들에 대한 경제적 대책, 의식주 기반 시설 확충, 전쟁 고아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취업 알선, 심리 치유 프로그램 가동 같은 소프트 파워 전략이 더 비중있게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면 테러는 근절되기 힘든 것이 중동의 구조적 현실이다.

이슬람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가?

이슬람은 610년 메카에서 무함마드란 인물에 의해 완성된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다. ‘알라’는 하느님의 아랍어 표기다. 이슬람교는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와는 달리 예수의 신격화를 부정하고, 하느님은 한 분이라는 절대적 유일신 사상을 가르쳤다. 이슬람은 우상 숭배 타파, 평등과 평화를 표방하는 철저한 일원적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입지를 마련해갔다.

아담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성경상의 많은 선지자들은 시대적 임무를 띤 훌륭한 인간 예언자로 인정되고 추앙되었다. 무함마드는 예수 이후에 신에 의해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로서 앞선 복음의 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질된 신의 진리와 곡해된 말씀을 바로 잡고 완성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보았다.

코란은 구약과는 많은 부분 일치하지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신약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지만 이슬람에서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탄생한 사실과 그의 기적 행위를 인정하고, 최후의 심판일 날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교리를 놓고 본다면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종교가 이슬람교일 것이다.

수니파와 시아파

632년 무함마드가 타계하자 이슬람 세계는 후계자 선출 문제에 부닥쳤다.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이 차례로 후계자가 되었다. 유일한 부계 혈통이자 사위였던 알리가 강력한 지지 세력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후계자가 되었는데 반대파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의 추종자들이 메카와 메디나를 떠나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교로 이주해 갔다. 이 무리들이 시아파가 되고,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이 정통파인 수니파가 되었다. 이란-이라크-비레인 등 10% 정도가 시아파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니파이다.

이슬람문화의 전성기와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

세 대륙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문화는 10세기경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 중심지는 바그다드였다. 대학과 천문관측소가 세워지고, 오리엔트와 그리스-로마의 중요한 철학서와 과학서가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특히 900년까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학자들의 많은 저술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이븐 시나(Ibn Sina, Avicenna, 980-1037)와 스페인의 무슬림 학자 아베로스(Averros, 1126-2298)는 이 시기에 활동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스피클라톤주의에 입각한 철학 체계를 세운 대표적인 학자였다. 아랍어로 쓰여진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풍부한 고전들은 후일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유럽에 전해졌고, 유럽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더욱이 무슬림들은 자연과학에서 매우 발달된 수준을 이룩하였다. 수학에서는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



서울 한남동 이슬람 사원. 아랍인들의 한국 사랑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한 번도 그들과 전쟁이나 갈등 같은 불편한 과거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덕분에 아시아의 문화 민족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에 성공한 모범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러러 본다. 그들이 닮고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인 것이다.

수자 체계와 영(0)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삼각법, 해석기학, 그리고 그 어원이 아랍어인 대수학(Algebra)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에서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되고,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들어 지구 구체설을 증명하였다. 이슬람력의 원리는 원나라 때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태음력의 정비와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 수술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의학자인 알-라지(Al-Razi)의 <의학대전>과 이븐 시나의 저술들은 유럽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재로 사용되었다. 화학분야에서는 승화 작용이나 증류법과 같은 화학 실험 방법이 고안되었다. 알칼리, 알코올 등의 아랍어 용어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중세 세계 최고 수준의 이슬람 문화는 과학을 중심으로 동서양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 용어와 일상 언어 중에도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화학(chemistry), 연금술(alchemy), 천문학(astronomy), 점성학(astrology), 대수학(algebra), 그리고 커피(coffee), 설탕(sugar), 레몬(lemon), 음악(music), 파자마(pajama) 등도 아랍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밤에 별을 보고 움직이는 유목생활과 새로운 오아시스를 찾아가 하는 열망은 천문학을 생존의 학문으로 발전시켰고, 아울러 심리적인 안정과 공동체적 운명이 점성학을 발전시켰다. 이슬람 세계의 이러한 학문과 문화적 성취는 후일 유럽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금기(Haram)와 허용(Halal) / 일반적인 이람 관습

- 1) 술, 돼지고기, 마약, 도박, 매춘의 금지(haram)
- 2) 알라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만을 취함(halal)
- 3) 오른손은 바르고 성스러운 일에, 왼손은 더러운 일
이나 화장실 불일에 씀
- 4) 남녀 내의 관습과 격리의 일반화 / 아내나 딸의 안
부 조심
- 5) 자존심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문화
- 6) 가까운 사이에도 서로 치부를 가리는 예의와 목욕
관습(Hammam)
- 7) 선물 문화와 주고받는 호혜 관계의 초대 문화 발달

역사 속에서 되짚어보는 중동의 한류 : 중동과 신라

이람문화의 중심도시 카이로에서 유행한 드라마 「겨울연가」가 전 이람사람들을 동화와 낭만의 세계로 빠져 들게 하더니, 2007년 이란에서는 「대장금」 인기가 신드 롬을 불러 일으켰다. 이란 인구 8천만에 6개월 평균 시청률 90%를 기록했다니 그 열풍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장금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가 연이어 방영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서는 한국 드라마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한국 사랑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번도 그들과 전쟁이나 갈등 같은 불편한 과거사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덕분에 아시아의 문화 민족으로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에 성공한 모범적인 나라로 대한민국을 우러러 본다. 그들이 닳고 따라가고 싶은 롤 모델인 것이다.

선진화된 미국이나 서구는 자신들과 너무 문화가 너

무 다르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침략하고 지배한 식민지의 생생한 기억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중동에서 한국 이미지는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특별한 입장과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한류의 배경이다.

이제 지속 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는 1회적인 아이디어나 유행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두 문화권을 이어주는 단단한 문화적 하부 구조가 다져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중동-아랍 간에는 적어도 1200년의 오랜 역사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7세기 중엽 페르시아 왕자 일행이 신라로 망명해 와서 신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신라와 페르시아 제국간의 독특한 우의를 다졌다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인 쿠쉬나메가 최근 발견되었다. 더욱이 18명의 아랍 학자들이 기술한 20여권의 아랍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에 신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아랍 상인들은 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해로를 통해 신라에 빈번하게 내왕했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귀국을 포기하고 신라에 눌러 살았다. 척박한 사막 오아시스에서 물과 초원을 그리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먹을거리, 광물과 금이 풍부한 신라야말로 최고의 거주지였을 것이다. 그들은 신라를 사라져 버린 낙원 아틀란티스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무리 불치병 환자라도 신라에 오기만 하면 씻은 듯이 나아버린다고 기술하면서 한국의 쾌적한 삶의 조건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한국을 향한 동경은 신라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고려 초기에는 대식이라 불리는 아랍 상인들이 수백명씩 사절단을 이루며 개성을 드나들었고, 몽골의 간섭을 받던 고려 말에는 한반도에 그들만의 집단 공동체를 이루며 모스크까지 짓고 살았을 정도다. 그러면서



우수한 이슬람 과학 기술과 유용한 첨단 정보를 우리사회에 전달해 주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는 음력의 정비는 물론 각종 과학 기기의 발명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슬람 대표들은 임금의 초청으로 궁중에 초대되어 코란까지 낭송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이슬람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마무리

9.11 테러 이후 지구촌의 초점은 온통 중동과 이슬람이다.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크게 늘어났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원유의 85%(에너지 자원의 90%) 가까이 중동에서 들여오고, 중동 특수를 원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1978년경 100억불 수출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시대라는 대망의 꿈을 이루지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초기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중동이었다.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200억 달러 규모 원전 수주에 이어 다른 중동 국가들과도 다양한 에너지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할랄 산업도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슬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

직은 낮설고 부정적이다. 그것은 1970년대 이후 석유, 건설 같은 시장 파트너로서, 최근에는 ‘테러=이슬람’이라는 서구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우리 인식 속에 많은 편견과 오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상품을 골라 사주고, 한류를 통해 한국 사랑을 키워가는데 언제까지 서구가 만들어 놓은 편견의 함정에 빠져 그들 친구를 적으로 버리고 갈 것인가?

12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눈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로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것이 실용이고 진정한 국익이 아니겠는가! 🍀

<읽으면 좋은 책들>

-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2011, 청아출판사)
- 이슬람과 한국문화(2012, 이희수)
- 쿠쉬나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공주의 천년사랑
- 김정명, 홍미정 역, 아랍인의 역사
- 버나드 루이스 중동의 역사(2009, 랜덤하우스)
- 이슬람 문화 (2003, 살림출판사)
- 로레타 나폴레오니, 2003, 모던 지하드, 테러 경제, 시대의 창

